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2

2017년 6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교육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김경애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소장

2016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교육 관행을 깨고 학교와 교사에 많은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학교 교실 수업 풍경을 빠르게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혁신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 방향과도 부합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는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변화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과연 앞으로 자유학기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자유학기제 지원 및 정책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김경애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에게 그 방향을 묻고 들었다.

##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보여준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학교 중심의 시범 운영 기간까지 포함하면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것은 어느덧 5년차를 맞는다. 그간의 자유학기제 의의와 성과를 김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 소장은 우선 자유학기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초·중등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 현장에 깔린 자유학기제라는 판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

김 소장은 “항상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 중심의 수업에 임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특성과 재능을 인정받고 발견하게 됐다”면서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넘어 창의적으로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수업과 평가로 단조롭기만 했던 학교라는 공간이 가르침과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 자유학기제 확대, 필요하나 신중하게

교육 현장의 이러한 고무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됐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6개 학기 중 1학기에 한해 시행된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만 자유학기제와 인접한 학기를 연계학기로 지정해 변형된 형태의 ‘자유학년제’로 시범 운영 중이다.

김 소장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자유학기제가 초·중등 교육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이 변화해 가야 하는 방향을 자유학기제가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자유학기제는 장기적으로 중학교 전체, 나아가 고교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속도다. 김 소장은 “아무리 취지와 방향이 맞더라도 해당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교육 정책은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그 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시·도나 학교별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 자유학기제 확대에 인한 유불리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도나 구성원의 이해도가 상당히 다른데다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자유학기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 소장은 “그나마 시·도별로 운영되는 고교 입시 제도가 집단 간 유사성이 큰 편”이라면서 “만약 시·도내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일괄 확대하기보다 시·도별로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들려 달라”

현재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는 자유학기제 확대를 둘러싼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확대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의 장점을 밝히기도 했다(<표> 참조).

**〈표〉자유학기제 확대 모델별 장점**

모델	적용 학기	장점
1학년 자유학년제	1-1 1-2	학년 단위로 연간 교육활동 수립하기가 용이 고교 입시로부터 비교적 여유가 있음
두 학기 자유학기제	1-2 2-1	자유학기제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함 여러 학년에 걸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음
	1-2 2-2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적합 (1,2학년 인원 동시 참여로 프로그램 다양화 가능)

하지만 김 소장은 교육 정책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한다. 김 소장은 “정책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라면서 “센터에서 교사와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니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확대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끝으로 자유학기제 확산을 이끈 교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덧붙였다. “시행 초기의 냉소적인 분위기에 돌고 돌아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의 희망을 경험한 현장 교사들이 중심축이 되어 노력과 헌신으로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이끌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만들어낸 긍정적 측면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또한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개발, 교사 연수 확대, 체제 정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김 소장)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